



코스피 2521.39 (+40.27)	코스닥 691.45 (+18.60)
금리 (미국 3년) 2.581 (+0.012)	환율 (원/달러) 1471.30 (-1.60) (1일)



유통가
경영실패에
기업회생 약용?
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용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美관세폭탄 떨어진다 제조업 60% '영향권'

관세부와 압박... 韓, 위기감 확산
철강·알루미늄社, 정보부족 호소
美,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한국과 '절충교역' 문제 제기도
정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
기업들도 국익차원 최대한 협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와 '선전포고'가 압박한 가운데 국내기업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 5곳 가운데 3곳이 미국발 '관세폭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 업체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46.3%가 미 관세정책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14.0%는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총 60.3%가 직·간접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백악관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애로 사항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관세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등도 꼽았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상 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가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총리공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4대그룹 총수들은 통상위기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들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 대미 협상 총력 경주 등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박태홍 기자 kys@metroseoul.co.kr

전장 키우는 JY·구광모, 글로벌 '합종연횡'

삼성전자, 중국 전기차 기업 협력
LG그룹, 글로벌 완성차 집중 공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자장비(전장)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종연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자동차 전동화 추세와 자율주행 전환에 맞춰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그룹 총수는 물론 계열사 경영진까지 나서 유력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중국 출장 길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사업 수장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내 관련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회장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부회장), 이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함께 지난 22일 베이징 샤오미 공장, 24일 남부 광둥 선전 BYD 공장 등을 방문해 최고경영진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BYD 왕완푸 회장이 삼성 경영진과 만난 후 곧바로 자율주행 기술 대중화와 관련해 앞으로 2~3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언급해 삼성전자와의 관계 구축에 관심이 쏠렸다.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핵심 사업과 연결된 전략적 시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2014년부터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천진과 광둥 동관에서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을 각각 1999년과 2004년부터 생산하고 있다. 삼성SDI는 2008년부터 천진에서 전기차 및 소형IT 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안에서는 2015년부터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각형 배터리 공장을 운영중이며 조만간 신규투자도 준비중이다. 삼성의 중국 현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매출은 64조9275억원으로 전년(42조2007억원)보다 53.9%(약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올해 첫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025년판 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감'을 주둔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집중 공략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스1

4일 '尹 운명의 날'... 11시 탄핵심판 선고

현재, 기자단 공지 통해 예고
방송 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당일은 12·3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4일은 최종변론 이후 39일째 되는 날이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료한 후 35일만에

잡혔다. 전례에 비춰 변론 종료 후 2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관측을 깬 것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한 셈이기도 하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선출시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반면 현재가 각각·각각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111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 받았다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현재로부터 연락 받았다"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현재 공문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尹, 나경원·전한길과 책 낸다... '새로운 대한민국' 10일부터 예약
▲권성동, 한 대행에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헌재 안전 유지' 요청 /사진 뉴스1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6월3일 결심... 선고는 미정
▲민주 "현재,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 줄 것 믿어"

▲조국혁신당 "정부·여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역풍 직면할 것"
▲국회 APEC 특위 출범...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기현

한덕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 합쳐야 지금의 위기 극복”

〈대통령 권한대행〉

4대그룹과 경제안보전략 TF

“투자·혁신 저해 장애물 걷어낼 것
기업, 과감한 도전·혁신 보여주고
주요국과 대한민국 동맹 강화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계 총수들에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오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네트워크를 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

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으로 4월3일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이제 앞으로의 협상,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상위기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들도 국의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계 지원 등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 대미 협상 총력 경주 등을 요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권한대행 “국가에 부정적 영향”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행사 안전 의결

“부작용 최소화 하는 대안 찾아야
모든주주 이익 공정 대우하는 의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전을 의결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



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안이 재가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법률안은 공포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LG엔솔, 美얼티엄셀즈 3공장 3조에 인수

GM과 합작... 캐즘돌파 위한 전략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과의 합작 배터리 생산법인인 얼티엄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취득한다고 1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3조 561억원이다. 이번 투자는 신규 증설 투자 부담 최소화과 기존 설비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계약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 집행하는 비용은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절반”이라며 “집행 비용은 올해 초 발표한 시실투자에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투자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한다. 얼티엄셀즈 3기 공장은 현재 건물 공사를 마치고 장비반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사는 기존 단독 공장 내 전기차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전환한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활용해 ESS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이로써 미국 홀랜드 공장 증설 라인을 ESS로 전환해 건설 예정인 애리조나 ES S 공장 대신 1년 빠르게 북미 현지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ESS 전환을 통해 라인 운영 효율화가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수출 582.8억 달러... 전년비 3.1% 증가

산업부, 불확성에도 3월 수출 ‘선전’
IT 전품목 8개월만에 동시 플러스

3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2위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5% 증가한 26억5000만달

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늘었다. IT 전 품목 수출이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에 따라 11.9% 늘어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컴퓨터(+33.1%)는 1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13.8%)는 2개월 연속 증가했고, 디스플레이(+2.9%)는 작년 8월부터 7개월간 지속된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제외)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 핵심계열사, 6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테크데이

》1면 ‘전장 키우는 JY...’서 계속

6월 현대차·기아, 7월 日 혼다 방문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오는 6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테크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계열사 수장들은 오는 6월 현대차·기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일본 혼다 본사를 방문해 자체 기술력을 선보일

방침이다. 권봉석 LG그룹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과 LG가 전장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것은 그 잠재력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와 자율주행 전환에 속도를 높이면서 전장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에널리틱

스에 따르면 세계 전장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00억 달러(한화 약 552조4800억원)에서 2028년 7000억 달러(한화 약 966조84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는 차량에서 모든걸 가능케 하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삼성과 LG의 전장 사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빛 더미 앓으면 나몰라라... 자구책 없이 '엑시트' 악용 우려

유통업계, 기업회생 신청

경영실패에도 자구 노력 없어
채권자 등 제3자 피해 확산
“관련 시장 전반 신뢰저하 야기”

홈플러스에 이어 명품 플랫폼 발란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통기업들이 기업회생 신청 제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제3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연이어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용평가 결과 발표 전에 이미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모회사인 MBK파트너스는 단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

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발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발란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기업회생신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준비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

을 신청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31일 기업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란 관계자는 “티메프 때도 받아줬는데 우리라고 안 받아주겠냐”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기업의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가 손쉬운 빛 탕감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제도의 근본 취

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업계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경우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권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발란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밝힌 채권자 A씨는 역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가족 경영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책임한 경영 뒤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빛을 탕감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굶직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유통 플랫폼이었던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며, 유통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넷 소속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인터파크커머스도 연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터파크커머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유동성 자금 경색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총 5개의 유통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심사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실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이 어려워 서울회생법원에 손쉽게 회생 절차 신청을 하는 행태 자체가,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일 많은데 처우는 그대로... 현장기피 여전

조선업계 '인력난'

지난해 조선업종 미취업률 14.7%
“작업환경, 보상체계 개선 서둘러야”

국내 조선업계에 수주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정착 현장을 책임질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와 조선업 전반에 깔린 기피 정서가 겹치면서 새로운 인력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선사들은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상대적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 거부감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31일 조선·해양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의 미취업률은 14.7%에 달했다. 인력 부족의 주된 이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부문 직원 수는 2023년 1만257명에서 지난해 1만1194명으로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같은 기간 9308명에서 9837명으로, 한화오션은 8892명에서 1만202명으로 각각 인력이 늘었다. 그러나 고용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조선사들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생산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05억 6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달러의 152.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신규 일감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에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는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에탄올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액 14조원 가운데 약 19%를 이미 달성했다. 이에 공채 및



울산지역 조선소 전경.

경력직 채용 전형을 통해 인력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총 88억 6000만달러를 수주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난도 용접·가공 등 생산 공정에 투입할 전문 생산인력 확보에 비상이다.

◆ 조선사들 정주여건 개선 '구슬땀'

조선사들은 현장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부산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했으며 HD현대는 경기도 성남시에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조성해 고급인력의 지역 근무 선택지를 확대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일부 덜어내면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 빅3(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원인 반면 임원 평균 연봉은 2억4300만원으로 일반 직원 두세명 연봉을 합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임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며 생산직

과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국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외국인 현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숙련 인력 확보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에 조선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나서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조선업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 인력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선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단행한 구조조정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여전히 크다”며 “시황이 변해도 조선소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국인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시황 변동에 따른 단기 수요에는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해외 생산이나 위탁 생산처럼 유연한 생산체계를 갖춘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은 민간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은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기업이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있기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선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치·경제 불안 고조... 달러 강세 '부채질'

환율 고공행진

투자자들 달러보험 재조명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달러가 지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급이야말로 달러보험 가입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중 최고점이자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483.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 같은 환율 급등(원화값 급락)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우려, 국내 정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무역장벽 강화 정책이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기업·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달러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자 경제 불안감이 커졌고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외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와 대내적 약세에 기인한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에 14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달

리보험은 환율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납입하고 만기 보험금을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 해약이나 중도인출을 통해 환급금을 현금화하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다”며 “반대로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새로 가입해 장기적으로 환차익을 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보험사들도 달러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시장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AIA생명은 달러종신보험과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로는 KB라이프생명이 달러보장보험, 달러연금보험, 달러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지급이라도 서둘러 달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외화보험 판매량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건수는 4만770건으로 전년 1만2553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판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7637억원에서 1조6812억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가입, 납입, 거치 기간 등을 포함해 거의 20년 가까이 봐야하는 상품이기에 단기적인 환율 등락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화에 따라 달러보험의 수익률이 변동하지만 환율이 높다고 가입을 장려한다면 불완전 판매의 위험이 있다”며 “달러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을 마련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기자 gh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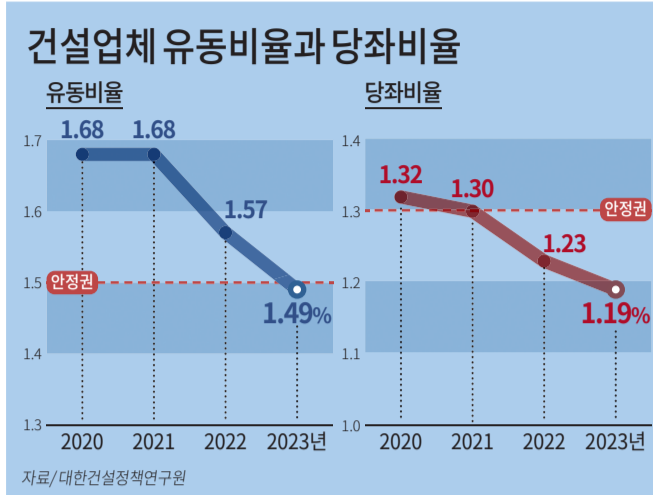
‘위기설’ 현실화 되나... 중소 건설사들, 유동성 붕괴 직전

중소 건설사들 부채·이자 ‘급증’
미수금 4배 늘고 적자전환 초비상
이자보상배율 급락에 불황 우려 ↑
정부 지원책 부족에 산업전반 위협

건설사들의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됐다. 이미 올해 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사업 보고서·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경제 위기까지 촉발할 것이라 설은 다소 과장됐지만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불황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이 고갈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지난 2023년 1.49로 안정권인 1.50 이하로 내려갔다. 더 보수적인 유동성 지표인 당좌비율의 경우 2022년도에 1.3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1.19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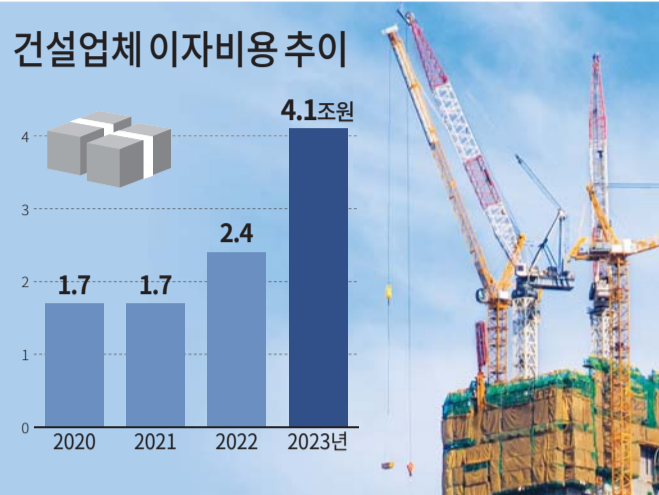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다.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했고, 미수금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건설사의 이자비용은 2021년 1조 7000억원에서 급기 상승기인 2022년을 기점으로 2조 4000억원, 2023년 4조 1000억원으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6.8에서 2022년 4.1, 2023년 1.5까지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 1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이자를 내는데 쓴다는 의미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야기한 건설공사비 증가는 영업이익을 악화시켰고, 시장침체로 미수금이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



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의 위기가 극대화될 것을 감안하면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위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2년간 대기업의 미수금은 2배

미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4배 이상 늘었다.

건설 성장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해도 흑자를 유지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2023년 2분기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와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 지원책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 및 지방 건설의 위기는 건설산업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건설산업의 지원정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마저도 우량사업장에 집중해 있어 대규모 원도급사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은 받기 어렵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도 타업종에 비해 소외되어 있어 건설경기 불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가계대출 1.7조 증가... 7월 DSR 강화전 수요 몰리나

가계대출 증가폭, 반토막으로 축소
주택 관련 대출 감소에 둔화 원인
3단계 DSR 시행 대출한도 축소 예상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기 때문에 4~6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 7519억원)과 비교해 1조 799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폭(3조 93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5조 6804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 319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 3606억원으로 2월 한 달간 3조 3835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난 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지난 1월 3920건에서 2월 52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은 529건에서 662건으로 25% 뛰었다.

3월 초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난 것을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망세로 돌

아셨다는 분석이다. 2월 신학기를 맞아 늘어난 이사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또다시 대출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5조 3415억원에서 7월 7조 1660억원, 8월 9조 6259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

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1.5%)를 추가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 기준(30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 금리 연 4.5%)의 차주가 금리인하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돼 비수도권은 6억 5800만원(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서 6억 4000만원으로 5400만원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는 5억 5600만원으로 1억 200만원 감소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

서울 송파, 아파트 경매시장 ‘과열’, 실거래 시장은 ‘위축’

토지거래허가제에 경매수요 급증
경매 낙찰가는 실거래가 ‘웃돌아’
실거래 시장 13개월 만에 하락세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가운데 경매 시장에선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뒤 실거래 시장은 위축된 반면, 경매 시장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 27명이 몰려 감정가(25억 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 7640만원에 낙찰



강남3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스1

됐다. 이 아파트의 동일 면적 실거래 최고가는 지난 1월 기준 28억 7500만원으로

이번 낙찰가는 일반 매매가보다도 3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실거래를 우회한 투자 수요가 경매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강남권에선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수요가 몰리는 배경에는 토허제의 예외 적용 규정이 있다.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상 낙찰자는 매각대금만 납부하면 실거주의무 없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전세를 낀 상태로도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면서 경매가 실거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인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감정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규제 직전 가격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고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거래 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0.79% 상승에서 -0.03% 하락으로 전환됐다. 송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약 13개월 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 심리와 자금 부담 확대가 겹치며 거래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실 엘스인근 부동산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

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토허제를 통한 단기 조정 효과보다 규제 피로감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의 실거래 하락과 경매 과열이라는 극단적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와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업주요 건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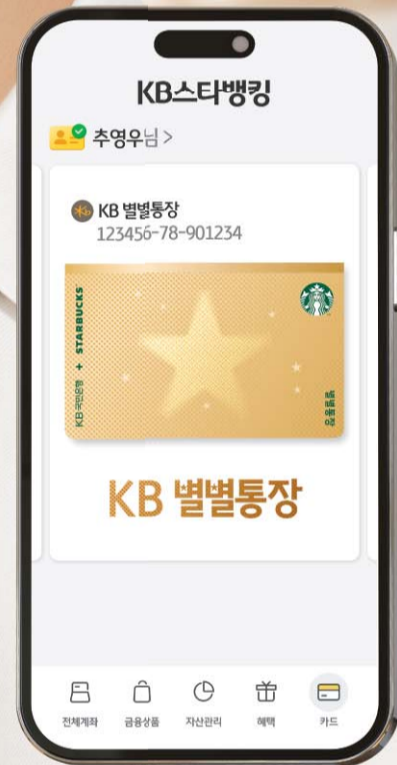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저랑 KB 별별통장 만드실래요?”

KB국민은행과 함께 만나는 금융 혜택부터 스타벅스 리워드까지!

KB 별별통장



파킹통장 금리 최고 연 2.0% (3백만원 이하, 세전) 이체/출금수수료 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연 최대 12개 지급 스타벅스 별 리워드 월 최대 5개 추가 적립

*KB 별별통장은 2025년 4월 1일 출시 상품입니다.

[KB 별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1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이 상품은 20만좌 한정 판매하며, 판매한도는 인터넷홈페이지, KB스타뱅킹,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3.27기준, 세금공제 전) * 기본금리: 연 0.1% (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금리 적용) * 우대금리: 연 1.9%P * 적용 대상: 이 통장을 최초 가입한 경우만 제공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는 제외
 - * 적용 기간: 최초 가입일(통장개설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2,5,8,11월의 둘째 금요일)까지 * 적용 한도: 이 통장의 결산일 평균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금리만 적용
 - 이자는 매년 2,5,8,11월의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해집니다.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자: 예금일부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 이 통장은 일괄적으로 2027년 1월 4일에 다른 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자동전환 상품 주요혜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및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KB 별별통장의 경우 입금(매월 합산 50만원 이상, 기존 급여이체 고객 제외) 및 간편결제 이용 등 지급 요건 충족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월 1매, 연 최대 12매)과 별일 1개, 월 최대 5개)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5-03949 호 (2025.03.24. ~ 2025.10.20.) *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1095-1호(2025.03.24.), 유효기간 2025.03.24.~2025.10.20. 까지

헌법재판관이 주문 읽는 즉시 ‘尹 파면 vs 복귀’ 효력 발생

현재, 4일尹 탄핵심판 선고

비상계엄 사태 123일째 되는 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파면 시 오는 6월 3일 안으로 대선
만장일치 경우 요지 설명 후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 현재가 발표한 선고 일자지는 4일로, 12·3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현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안이 현재로 넘어온 이후, 현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1~2월 사이 11차례 변

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 가졌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한 차례를 빼놓고는 매번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후 변론 당시에도 계엄은 정당했으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현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한 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의혹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재판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설, 5대3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 등이 여론의 불안을 자극했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만일 기각·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112일간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된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들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심판은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AI 간담회’서 민생행보… 野, 광화문서 ‘마은혁 임명’ 촉구

국민의힘, 서울AI허브 방문

“AI 지원 예산 2조 이상 협의 중”
민주당 “韓 권한대행, 마지막 경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간담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행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를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주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해성 에어스메티컬 대표 등 AI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면서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과 민간 투자 규모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큰 격차가 있다. 글로벌 AI에 뒤처지지 않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주도의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AI 생태계의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AI 산업 위치를 현재 글로벌 6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빅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AI 지원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현장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 ▲국내 미성숙한 AI 시장 ▲막대한 개발 비용 ▲훌륭한 인재 육성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CTO는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를 만나봤을 때,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국 정

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유명 스타트업은 이미 받고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광화문 정부중합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한을 4월 1일로 못박아놓고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현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

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정 봉기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과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오늘부터 본회의 열려…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합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尹 선고기일 지정에 표결 미지수

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 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

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오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

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

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리었다.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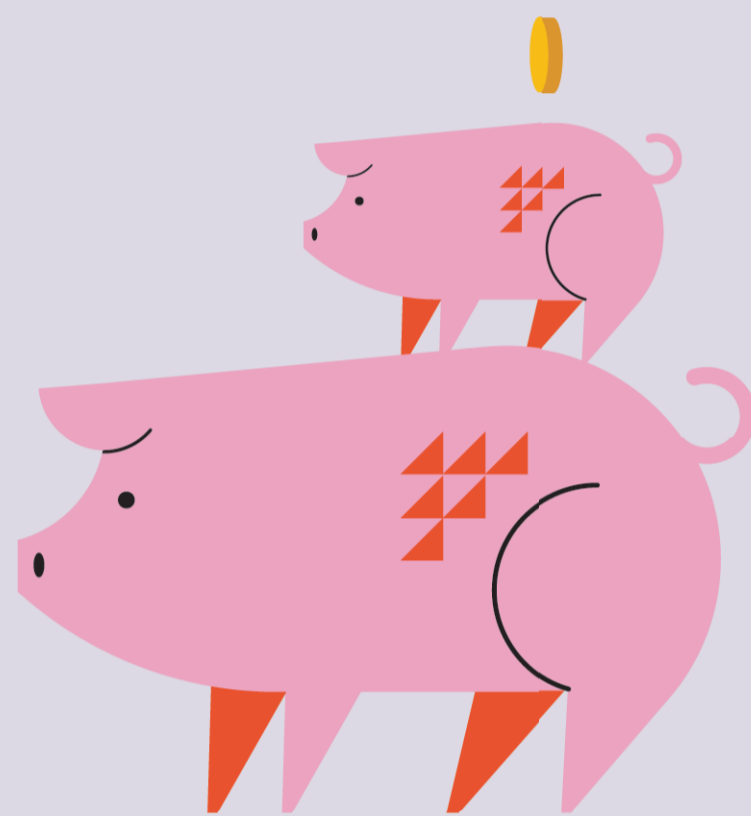
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현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박태홍 기자

중개형 ISA는 KB증권에서 잘 겁니다

KB증권 중개형 ISA가 세금부터 똑딱! 아껴주니까



재테크 ▲ 되지 세테크 ✨ 되지 한 방에 똑딱!

KB증권 중개형 ISA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072호(2025.03.24~2026.03.2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영업점 계좌) HTS 1천만 원 미만 0.1563%~0.1573%+1,000원/MTS 0.1963%~0.1973%(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 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손보사, 차별화 승부수... '배타적 사용권' 경쟁 불 붙는다

당국,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연장 제도 확대 따른 상품개발 심화 예고
올해 획득 6건 중 4건은 'DB손보' 반력인 입원후 위탁비 등 차별화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이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손보사들은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작년 같은 기간(3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다.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상품이나 보장 방식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상품 선택의 기회를, 보험사 입장에서 시장 선점 효과와 상품 차별화를 동시에 안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배타적 사용권 이미지.

겨준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손보업계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 6건 가운데 4건을 가져갔다. 지난 1월에 '반력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개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으로 올해 손보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연이어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력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

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손보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실적은 활발했다. 작년 손보업계는 총 24건을 기록해 생보업계(10건)에 비해 2배 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3월까지 손보업계가 6건을 확보한 반면 생보업계는 1건에 머물러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도 확대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을 갖춘 보험상품에 더 오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

다는 취지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초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보장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긴 보호 기간을 부여 받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선점 효과가 커지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한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생길 것"이라며 "기존 3, 6, 9, 12개월로 배타적 사용권을 구분하던 점수표 대신 새로운 기준과 평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과거 노하우 발휘... 공제상품 강화로 흑자전환 목표”

새마을금고 새 얼굴

이만중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

17년만에 이사장 복귀, 감회 남달라
조직문화 개선·수익성 확대 등 추진
복지사업 강화·조합원 배당도 확대



이만중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

제로 진행했다. 후보자 4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서울 지역 금고 중 가장 치열한 양상을 나타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3143명이다. 이 이사장은 1354표(43.07%)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이 이사장은 임기동안 ▲조직문화 개선 ▲흑자전환 ▲조합원 편의성 제고 ▲수익성 확대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이 처음 금고를 창립했을 때는 자본금 7억원, 임직원 4명으로 출

범했다. 지난 36년간 자산가치는 533배, 임직원은 23명으로 늘었다. 그가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올해 흑자전환의 포석을 준비하는 해로 정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에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채권매각 등의 경로를 활용해 부실 사업장을 처분하고 상환 여지가 높은 사업장을 살려낼 계획이다.

이 이사장이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공제'다. 공제란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저축성공제 상품을 주력으로 불황에도 현금이 이탈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과거 전국우수공제 금고를 만든 노하우를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이 이사장은 "아무리 건전하고 우량한 금고라도 한 번 추락하면 반대에 몇 십년이 걸린다. 공제 등 안전한 현금자산을 축적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생활과 함께 조합원 편의성 제고

도 추진한다. 현재 금빛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을 위해 노래교실과 드럼교실, 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추후 서예교실과 그림교실을 신설해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성을 확대해 넓은 주차장과 최신 시설을 갖춘 건물로 금고를 이전하는 것 또한 생각 중이다.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도리운동'을 시작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 나눔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동안 업무과약을 위해 시간을 쏙아야 하지만 임직원과 논의해 복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원 배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과거 수기장부와 주판으로 금고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월한 시대가 됐다"면서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과거의 요령을 적용해 금고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그룹

**장애인·뉴시니어 등
일자리 인턴십 모집**

230명 선발, 지원금·교육 제공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뉴시니어(5060세대)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에는 총 2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 채용이 완료된 사회적기업에는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2개월 급여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무 특강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도 월 1회 제공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월 30만 원 한도 내 ▲맞춤형 성장지원금(자격증, 건강관리, 멘토링 등) 월 15만 원 ▲소상공인 가족 참여자 지원금 월 10만 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교육지원금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월 1회 공통 역량 강화 교육 ▲월 2회 인턴십 유형별 맞춤형 특강 등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 뉴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혁신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 및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115@

교통카드 빅데이터 민간 개방... 신개념 서비스 개발 기대

국토부·TS, 분석 환경 제공
개인정보는 철저히 암호화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는 신규 버스 노선 도

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대중교통법상 민간에는 가공해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이날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

안대책 등이 갖추어진 시설이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방으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 및 노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와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카드 데이터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그동안 민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분석자료 제공으로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 역량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적자 시달리는 효성화학... 자산매각 등 위기 극복 총력전

이건중 대표, 재무개선 의지 표명
모회사 효성에 일부 사업부 매각
“충분히 회생 가능한 사업구조 갖춰”

석유화학업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효성화학이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여파로 주가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모회사 효성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위기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지난해 32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과 2022년에도 각각 3469억원, 4088억원의 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 폭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 손실이 지속되며 재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생산 공장. /효성

공장가동률 또한 지난해 76%로 집계돼 전년대비 10% 하락한 수치다. 같은 해 말 효성화학은 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사업부를 9200억원에 매각하며 자본금 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부채는 3조 3400억원에 달하며 2022년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재무 상황이 나빠진 배경에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베트남 공장의 부진이 지목된다. 효성화학은 지난 2018년부터 약 2조원을 투자해 베트남에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PP시황 둔화와 현지 운영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양도가액 1500억원에 지주사 효성에 온산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양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옵티컬 필름과 필름 사업부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화학은 지난 3월 26일 “주관사를 선정해 옵티컬필름, 필름사업부 등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석유화학업황이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본질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화학이 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베트남 사업 등 전략적 영역을 살리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자산 매각으로 급한 불을 끈 수준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업황 회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성화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중 효성화학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효율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건전한 재무 구조 개선 없이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현금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용절감 방안을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美 가격조정 검토... 인상 가능성

자동차 관세 후폭풍

美 자동차 가격 평균 11% 상승 전망
토요타 동결 예고... 시장영향 주목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가 잇달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추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현지 자동차 판매가격이 최대 12%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가격 조정을 검토하는 반면 토요타는 고정비 감축을 통한 가격 동결을 예고해 향후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글로벌 투자회사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여파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평균 1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상 금액은 모델에 따라 5000~1만5000달러(한화 약 700만~2000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달러사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정책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미국판매법인(HMA)은 현지 달러사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

랜디 파커 HMA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현지 딜러에게 서신을 통해 “4월 2일 이후 도매 물량에 대한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지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앞서 페라리는 지난달 27일 올해 재무 목표를 확정하면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요타는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토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없다”며 “이를 대신 고정 비용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생산 비용과 인건비, 마케팅, 연구개발 등에 있어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관세 25%의 가격 인상요인을 상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이를 계기로 미국내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부품별로 관세 부과 일정은 다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차도 가격 인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공개

연내 아시아·중동 등 출시 예정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관성처럼 여겨지던 소형 전기차(EV)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피치스 도원’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디자인 콘셉트카 ‘INSTEROID(이하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스터로이드는 현대차의 EV터어라운드를 이끌 소형 전기 SUV인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해 제작됐다.

현대차는 ‘인스터(INSTER)’의 유니크(Unique)하고 경쾌한 정신에 ‘강화

하다’라는 뜻의 ‘스테로이드(STEROID)’를 결합한 인스터로이드라는 이름을 통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했다.

인스터로이드는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과감하고 독특하게 풀어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실용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겸비한 인스터에 비디오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특히 인스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을 살리면서도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21인치 휠, 공기역학 요소가 돋보이는 윈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이 결합돼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차량 내부는 몰입형 사운드스케이프, 유니크한 콕핏을 통해 보다 몰입감



현대차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있는 디지털 경험을 더했다.

여기에 계기판과 사운드 디자인, 차량 외관 및 내부 곳곳에 인스터로이드를 상징하는 ‘부스트’ 캐릭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현대차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중동, 중앙 및 남미 일부 시장에 인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주요조직 인사

노태문 사장, DX·MX 사업 이끈다

(디바이스경험·모바일경험)

DX 부문장 직무대행 내정

삼성전자가 고(故)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공석이 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사진)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일 DX부문과 MX사업부, 디지털가전(DA)사업부 등 주요 조직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태문 사장은 DX부문장 직무대행을 겸임하며, 기존의 MX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 역할도 지속 수행한다.

노태문 사장은 1968년생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MX사업부 개발실장, MX사업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갤럭시 신화를 이끄는 등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 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2010년에는 갤럭시S 개발 공로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기술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MX사업부장을 맡아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해



왔다. 노태문 사장이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MX사업부의 운영을 총괄할 새로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이 신설돼 최원준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글로벌운영팀장 사장이 선임됐다.

최 사장은 켈릭 출신으로, 삼성전자 입사 후 MX사업부 차세대제품개발팀장, 전략제품개발팀장, 개발실장을 거치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한 스마트폰 전문가다. 향후 그는 MX사업부 COO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디지털가전(DA)사업부장은 김철기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 부사장은 삼성자동차에 입사해 부품기술 및 품질 업무를 담당한 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가전, TV 등 다양한 제품군의 영업을 경험하며 기술과 영업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혜민 기자 hyem@

마우로 포르치니 디자인 총괄사장 임명

글로벌 디자인 조직 총괄 예정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사장)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인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탈리아 출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공대에서 산업디자인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필립스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시작해 3M과 펍시코에서 CD O를 역임하는 등 글로벌 디자인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포르치니 사장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디자인 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경기 어려운데 가격인하 압박까지 레미콘·시멘트업계 위기감 ‘폭증’

수도권 등 레미콘값 1~2%대 인하
국토부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 심화
시멘트 내수 445만t, 24.8% 감소
시멘트 가동률 65%, 8개 공장 중단
4월 중 2개 공장 추가 정지 예정

정부와 건설사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가뜰이나 경기 침체에 고전하는 레미콘·시멘트업계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건설사는 시멘트, 레미콘의 최종 소비자이자 사실상 ‘갑’이다. 레미콘·시멘트업계는 건설사들이 불경기에 분양가 인하는 커녕 분양원가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레미콘, 시멘트 가격만 압박하며 생색내고 있다는 불멘소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레미콘 업체간 줄다리기에 가장 큰 시장인 수도권과 부산권 레미콘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은 개별 레미콘 회사와 시멘트사로 넘어갔다.

수도권 레미콘 가격을 두고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자재지협의회(건자회)와 수도권 레미콘 업체를 대표하는 영우회가 4개월 가량 총 11차례 회의에서 줄다리를 한 끝에 올해 레미콘 단가를 루베(㎥)당 9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9만3700원보다 2.5% (2300원) 내린 가격이다. 당초 건자회는 8만8200원, 영우회는 9만6700원을 제시했다. 부산, 김해, 양산을 아우르는 부산권도 최근 레미콘값을 ㎥당 10만1300원에서 9만9400원으로 1.9% (1900원) 내렸다.

건설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인하’를, 레미콘업계는 전기요금, 인건비, 운반비 등 비용



레미콘·시멘트업계가 전방 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공장 전경.

증가로 ‘인상’을 각각 요구했다. 인하 가격은 소급해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힘의 논리에서 건설사에 전 레미콘 업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은 운반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가격 인하 요인이 전혀 없다. 게다가 레미콘 가동률은 1998년 IMF 직후에 30%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7.4%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는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압박 등에)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레미콘업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공사현장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 등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는 1000개가 넘는 중소레미콘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업조정 제도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업계는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레미콘과 가격 협상을 해야하는 시

멘트도 상황은 최악이다.

한국시멘트협회가 올해 1~2월 시멘트 내수를 집계한 결과 445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92만t)에 비해 24.8%나 감소했다. 1~2월 내수 판매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다. 2023년 712만t과 비교해도 2년만에 무려 37.5%(267만t)가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멘트내수를 4000만t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1991년(4420만t) 당시 처음으로 4000만t대에 진입한 이후 IMF 외환위기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4000만t 아래까지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91년에는 당시 생산능력(4361만t)을 초과한 수치였지만 지금은 생산능력이 6200만t까지 증가했다. 기업경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동률(70% 대 이상)보다 낮은 64.5%까지 하락하며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

김 이사장 “역할 확대 등 한 단계 성장”

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 모색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다.

1일 기보에 따르면 김중호 이사장(사진)은 이날 36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AI기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민관협력 중기전용 M&A 플랫폼 등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혁신 금융 지원체계 구축 ▲청렴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플랫폼으로도 도약할 것임을 주문했다.

기보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36년 후의 기보’라는 주제로 기관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사내 공모전’도 진행했다. 청년 예술가 작품 전시, 기부 캠페인, 헌혈증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기보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재해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제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편, 기보는 설립 이후 지난 36년간 기술보증 502조원, 보증연계투자 5962억원, 기술이전 9800여건, 기술보호 1만5000여건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 주기 성장에 기여해왔다.

/김승호 기자

삼양, 화학그룹 중심으로 다변화 박차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나서

삼양그룹이 스페셜티 소재와 솔루션을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화학그룹을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양그룹은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인 삼양에코테크를 통해 생산-유통-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페트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삼양그룹의 페트 용기 및 음료 제조 계열사 삼양패키징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22년 설립됐다. 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페트칩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에코테크는 경기도 시흥시에 연간 4만 5000톤의 페트병을 물리적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 연간 생산규모는 페트 플레이크 3만 2000톤, 재활용 페트칩은 2만 2000톤에 달한다.

삼양에코테크는 최근 자체 생산한

페트 플레이크와 재활용 페트칩을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을 획득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증받았는데 이어 최근에는 식약처의 인증을 획득하며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인증을 갖추게 됐다.

지난 1976년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수지 생산을 시작한 삼양사는 바이오 의약품수지 국산화에 나섰다. 삼양사는 최근 아가로스 수지 전문기업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아가로스수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조 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씩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료와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삼양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이온교환수지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수지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의약품수지 연구개발에도 나서 소재 국산화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위니아, 회생 기한 앞두고 ‘생존 기로’

서울PE 재계약 실패 불확실성 증대
광주·국회 등 회생 추가 시간 요청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중견가전기업 위니아가 회생 절차 최종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와의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회생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다.

위니아는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PE와의 인수·합병(M&A)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위니아는 지난 1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위니아관리인·노조, 채권단대표와 함께 법원을 방문해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채권부가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면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PE는 위니아의 기업가치를 약 870억 원으로 평가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스토킹호

스는 인수 대상 기업이 특정 인수자(스토킹호스입찰자)와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거쳐 다른 입찰자가 없을 때 스토킹호스 입찰자가 최종 인수하는 방식이다. 서울PE는 채권 중 미지급 임금과 협력업체 채권의 8%를 현금으로, 나머지 92%를 위니아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PE는 1차 계약금 43억 5000만 원을 냈지만,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2차 계약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3일 조건부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변제율 조정 등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투자자 설득 등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재계약도 무산됐다.

오는 23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니아는 광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약 350명의 직원과 150여 개 협력업체를 통해 약 2,500명의 종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지역 주력산업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파산이 현실화될 경

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위니아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채납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위니아 노조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공장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약 114억 원을 채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노조 측은 “피해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바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국회도 위니아의 회생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용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한이 도래되어 파산이나 청산에 이르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임금 채납 노동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고객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혜민 기자 hyem@

LS전선, HVDC 품질 시험 인프라 확대

전기연구원과 시험장 장기 사용 협약

LS전선이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에서 글로벌 누적 수주 3조원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품질 인증 수요에 대응해 시험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LS전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경남 창원 HVDC 시험장의 장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S전선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KERI 시험장에서 525kV HVDC 케이블 시스템의 품질 및 성능 시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KERI는 전력기기 품질을 검증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정회원 자격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HVDC는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기술로 해상풍력 및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HVDC 케이블은 고객 요구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는 주문형 제품으로 프로젝트별 품질 및 성능 시험이 필수적이다.

/차현정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IT업계, 자체개발 대신 ‘개방형 전략’... “기술격차 극복 우선”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 준비 중”
카카오, 오픈AI 챗GPT 탑재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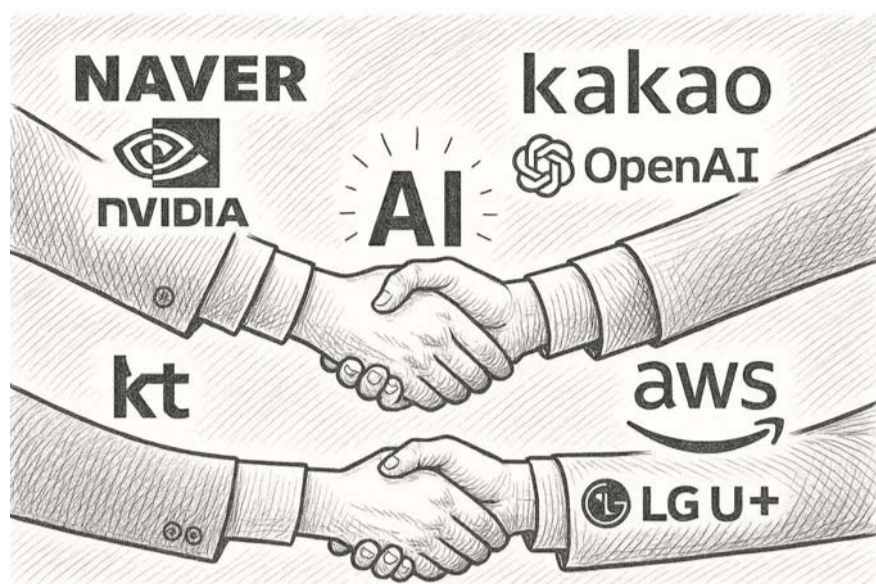
SKT, 투게더AI에 추가 투자 단행
KT, MS와 전방위 협력 추진 중
LG U+, AWS 연계 AX 생태계 조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인공지능(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을 비롯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두 회사는 이날 각각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사내이사로 복귀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통신·IT업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이미지.

해야 한다”며 “엔비디아(NVIDIA)와 다양한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앞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와의 업무협약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에 오픈AI의 챗GPT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

난해부터 외부 LLM을 활용한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 전략을 수립해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와 함께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며, 연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도 유니콘 기업 투자와 글로벌 기술 제휴를 통해 AI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3월, 엔트로픽·퍼플렉시티·트웰브랩스 등 AI 스타트업에 이어 투게더AI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 A*)’ 기술 고도화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방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AI 교육 협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한국형 AI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반영한 AI로, 역사·철학·사회 등 국내 콘텐츠 학습에 기반을 둔다.

LG유플러스도 글로벌 협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흥번식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AI 전환(AX)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겠다”며, AWS와의 연계를 통해 소버린 클라우드 기반 AX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는 이유는 자사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전문화된 투자금

액에 따른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분야는 투자 규모와 학습 데이터의 양, 컴퓨팅 자원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외부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포석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술 의존도가 커지며 기술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력의 열세를 빠르게 뒤집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LLM을 조기에 도입하고 서비스에 맞게 최적화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협력을 통해 기술 자산을 확보하고, 빠르게 상용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넷마블, 김병규 단독체제 전환... “신작 9종으로 글로벌 입지 다질 것”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권영식 대표 사임 등 안건 확정
확신 있을 때 PC·콘솔시장 도전

권영식 넷마블 각자 대표가 사임하고, 넷마블은 김병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넷마블은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지하위 컨벤션홀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넷마블은 이날 주총에서 권영식 대표의 사임 안건을 확정하고 넷마블네오의 상장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병규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전환과 신작 9종 출시도 예고했다.

권영식 대표는 신설된 ‘경영전략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한다. 넷마블 산하 개발사의 개발 역량 강화와 게임사업 전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김병규 넷마블 대표가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에서 열린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넷마블

권 대표는 넷마블 대표 자리는 물러났지만 넷마블네오 대표직은 유지한다.

각자대표에 오른 지 1년 만에 단독대표가 된 김병규 대표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나혼자만 레벨업: ARISE(어라이즈)’, ‘레이븐2’ 등 주요 신작의 성공적인 출시와 비용 효율화 효과가 본격화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선보일 신작 9종을 통해 실적 개선에 집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는 넷마블이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라며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일곱 개의 대죄: Origin(오리진)’ 등 총 9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이브 지분 매각에 대해 김 대표는 “매각 후 하이브 주가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감안하고 거대한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완전체 활동을 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넷마블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콘솔시장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트리플A(블록버스터급) 콘

솔 게임을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모한 결과가 된다면 주주들에게 큰 폐가 될 거라 보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순차적으로 PC나 콘솔도 도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6638억원, 영업이익의 2156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건의 의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넷마블은 이날 주총에서도 기속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리나 환 텐센트게임즈 사업개발 총괄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강이 LNK세무회계 대표를 사외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국내 ChatGPT 사용률 ‘50.9%’... “정확·구체적 정보 만족”

오픈서베이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이 챗GPT를 포함한 AI 검색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1일 공개한 ‘AI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의 70.5%가 챗GPT를 알고 있으며 이 중 50.9%는 실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경험률 33.8%), 일본(25.2%)과 비교해 각각 17%p, 25%p 이

상 높은 수치다. 인지도 면에서도 미국(65.3%)과 일본(56.3%)보다 앞섰다.

또한 한국 응답자는 ‘정보 검색’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은 감정적 교류나 친구 같은 대화 상대로서의 AI 활용 비율이 특히 높았다. 미국은 두 성격이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났다.

현재 AI 검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 정보 제공’(한국 51.5%)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검색 결과 요약’과 ‘추천식 응답’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

족 요인으로는 ‘잘못된 정보 응답’(한국 38.7%)과 ‘사실 확인 어려움’(34.2%)이 주를 이뤘다.

기존 검색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정보 탐색 시 ‘네이버’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69.4%에 달했으며, 일본은 야후 재팬, 미국은 구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10대·20대에서 AI 검색 사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Z세대를 중심으로 AI 친화적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서현 기자

분할 신설법인 ‘티머니모빌리티’ 출범

티머니-카카오모빌리티 ‘맞손’ 핀테크&플랫폼 분야 경쟁력 제고

티머니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핀테크&플랫폼 기업인 ‘티머니모빌리티’를 새롭게 선보인다.

티머니는 모빌리티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티머니모빌리티’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티머니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모델을 구축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운수 업계의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

획이다.

티머니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핀테크&플랫폼 분야 경쟁력 제고 ▲대중교통 중심 통합 이동 서비스 활성화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새 성장 모델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분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공교통 및 공익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한 국내 관광 활성화, 신규 서비스 발굴 등으로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hiki@

상장사 1분기 이익 전망 하향곡선... 연간 실적도 '비관적'

올해 코스피 193개사 예상영업익 전년 대비 5.59% 줄어든 271조 글로벌 통상환경·경기 악화 이유 “금리 인하시 유동성 효과 기대 성장기대 기업 투자매력 있어”

흔들리는 주가에 실적도 없는 모양새다.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지고 있다. 더 문제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 실적이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수치며,

지난 1월 전망치(274조5398억원)와 비교해도 1.31% 줄어 들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1조84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2.84%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32조7260억원)과 비교해도 1조642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외에도 시총 상위인 SK하이닉스는 1.70% 감소한 33조5275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38.46% 줄어든 1조6373억원으로 예측됐다. 현대차 역시 14조497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72% 낮게 전망됐다.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내 경기 상황의 동시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국내 정치 불안까지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수출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 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관세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적 개선 시점은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제시한 것은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처음이다. 이 기관은 약 70명의 경제학자가 소속된 거시경제 분석 전문 기관이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에서 1.2%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HSBC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당장 실적이 잘 나온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더어라운드’ 되는 양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둔화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 효과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모멘텀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며 “성장 기대가 유효하거나 수익의 안정성이 입증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투자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검토중 ‘종합금융’ 도약 속도



김남구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보험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 진출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며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험업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인수는 마땅한 상대가 있어야 하고, 또 매각 측과 우리의 전략이 맞아 하기 때문에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그간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나올 때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자회사로 증권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보험사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 인수는 계열사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증권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투그룹은 보험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홈플러스·MBK, 신용등급 강등 사전인지 가능성 포착”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 확인 감리전환, 보다 세밀하게 살필 것”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포함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지난 2월 28일이지만, 이보다 이르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MBK는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직후인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의 불법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관에서 홈플러스 감사 및 조사,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IS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양사태나 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도 발견해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함 부원장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를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9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와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 신용평가사, 신용증권,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조사·감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성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MBK는 회생절차 준비를 2월 28일 이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미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와 우선순위 등이 불확실해 협력사와 입점사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임대료 지급을 미루면서 모호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교보증권 사원증 태그로 기부 ‘기부키오스크’ 운영

교보증권은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 키오스크’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를 반영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교보증권 기부 키오스크’는 사원증 태그로 기부가 이뤄지는 방식이며 횡수 제한 없이 최소 3천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는 쪽방촌 거주, 결손 가정, 중증장애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스토리를 접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기부는 온라인 기부플랫폼 ‘해피빈’ 사이트나 QR코드를 통해 본사 입사 및 방문객,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해 의미를 더한다. 모금액은 위기 아동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생계·교육·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美 증시 변동성... 배당·채권 ETF로 ‘방어적 투자’ 전략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연간 배당수익률 4% SCHD 4082만 달러어치 순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며 배당 및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에 나서

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증시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적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3월 25~31일) 서학개미들은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D)를 4082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 ETF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인덱스를 따르는 분기배당 상품으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통신사 버라이즌과 코카콜라, 석유·천연가스 기업인 쉘브론 등 최근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종목들

이 포함돼 있어 방어적인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CHD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4%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인 JP모건 나스닥 지수 프리미엄 인컴 ETF(JEPQ)에도 1538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 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가 하락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서학개미들은 배당 ETF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높은 미국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아이박스 미국 달러 투자등급 회사채 ETF(LQD)를 2678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LQD는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연초부터 미 증시는 지속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1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4.6%,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내렸다.

김승혁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2일 예정된 관세 발표 이후에도 정책적 의구심이 남아있어 증시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청년·지역주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상생의 발판 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사·지역주민대표 국외 공동연수’
일본 오사카 폐기물처리장 등 방문
지난달 학생골프선수권대회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청년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9~22일 나흘간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사-지역주민대표 상생·소통·협력 국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등 수도권매립지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 지하화 환경기초 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데 이어, 올해는 일본 현지의 선진 폐기물



공사는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을 통해 ‘폐기물의 위생적 매립 및 자원화’ 등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 속 건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사 본사. /공사 유튜브 계정 갈무리

처리시설 견학과파크골프장 설치·운영을 벤치마킹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고베 미나토지마 소각장 등의 일본 내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았다. 운영 현황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례를 살펴보고, 츠루미료쿠치 등의 파크골프장도 방문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혜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씨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적극 소통’ 통한 노사화합·창의적 업무



일본 오사카 시내의 인공섬 ‘마이시마 소각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공사는 ‘노사 합동 2030 청년소통단’을 발족했다.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모임이다. 청년소통단은 노사 공동으로 20~30대 직원 중 단장, 추진점검단을 꾸려 팀 단위(업무부서팀, 청년소통팀, 소통관리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정기 및 분과 회의 등을 개최해 ▲노사협의회 미결안건 논의 ▲신규안건 발굴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기관장·노동조합과 직접 소

통 등을 추진한다. 공사내 전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소통단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제언 등을 검토해 우수 제안자, 우수 소통참여단원을 선발·포상도 할 계획이다. 소통단발대식 행사에서 송병역 공사 사장은 “청년소통단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젊은 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경영 쇄신과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이성호 위원장은 “청년소통단은 노사 화합과 소통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사 발전과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지난달 27~28일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에서 ‘제2회 드림파크C 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스포츠 꿈나무 양성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회는 지역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과 함께 제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광역시 대표 선발전도 겸한다. 또 참가 학생 선수 전원의 참가비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부담하고, 입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12조 풀어 민생 살린다... 소상공인·중소 지원 확대

전년대비 2조2000억 증가
상반기에 57% 투자비 집행

한국전력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투자비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9.7조원) 대비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만 6조7000억원(57%)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는 목표액 2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초과한 3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일부터 한전 본사(2000여명 근무) 구내식당을 주 2회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뉴시스

(수·금 석식) 휴무해 임직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촉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등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제품을 품목별 총구매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구매하고, 임직원 급여 및 사회공헌 활동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지난 2024년 11월부터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 구매 시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한전과 계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대출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에너지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자금 지원도 지난해 128개사

에서 올해 157개사로 확대한다. 한전은 이외에도 2014년 본사 이전 후 나주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 농번기 일손 돕기, 지역 특산물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러브펀드’와 ‘매칭그랜트’를 활용해 전국 250여개 사업장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며, 공기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빵 신메뉴 선포 ‘베이커리 페어’서 출범식

각 지역 베이커리에서 가루쌀 빵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문객에게 성심당 ‘딸기시루’를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페어에서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출범식’을 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가루쌀 빵을 소개하고 지역 베이커리 100여 곳이 참여한다. 정부는 쌀 과잉을 낮추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도입된 가루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베이커리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빵류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베이커리 30곳에서 120종의 가루쌀 빵과 과자를 개발했다. 또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해 참여업체 대상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원료 공급, 가공적성 교육, 품평회 개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개발된 가루쌀 빵은 우리 주변 베이커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성심당(대전)은 과일시루 등 3종, 푸레주르(전국)는 기본종은 쌀베이글 등 8종, 그린하우스(경남 창원)는 쌀식빵 등 38종, 독일베이커리(충남 당진)는 찹쌀과 배기 등 22종, 그라츠과자점(서울)은 샌드위치 등 23종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되는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에서는 성심당, 푸레주르, 그린하우스, 독일베이커리, 그라츠과자점 등 우수업체 20여개소의 가루쌀 제품 전시와 소비자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월급 3개월 안주면 상습체불사업주”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

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나온 3개월치를 미지급하고,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제재를 받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중견기업 원전 수출 맞춤 지원

산업부,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일~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우선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수출 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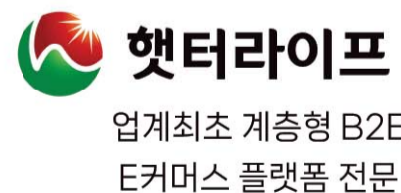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 일정** 2025년 4월 15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정원** 선착순 20명
- 수강료** 전액 무료
-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 목표**
-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주관 **햇터그룹**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7번 출구에서 600m/9번출구 공사중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담당자 성기홍 본부장 (1522-7585 / 010-3088-0047)

부산시, 올해 '19.2만개 일자리 창출·고용률 67%' 목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총 2조1000억 예산 투입
지역 특화 일자리 등 강화



부산시청.

부산시는 1일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7.1%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계획은 '민선8기 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최근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해 수립됐으며, 청년 고용률(15~29세) 46.3%, 여성고용률(15~64세) 59.0%, 상용근로자수 94만 명 등 세부 목표도 함께 내놨다.

특히 올해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개 이상으로 잡아 지역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시

민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 ▲대상별 맞춤형 일

자리 창출 등 4대 전략 1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시 복합산업(마이스)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패키지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과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반도체, 신소재, 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계부품, 신발·섬유,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도 집중한다.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본격 가동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혁신을 지원

한다. 또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 기회발전특구 조성, 한국산업은행 이전,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지속해서 힘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가칭)를 새롭게 조성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여성·장노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5년 부산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디지털·친환경 등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각계각층서 산불피해 성금 기탁

경북 의성군에서 확산한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본 영덕군에 각계각층의 성금 기탁이 이어져 재기의 희망을 싣고 있다.

지역 출신의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영덕군을 찾아 성금 5000만 원을, 역시 지역 출신 사업가 신영덕풍력발전·화남그룹의 박봉용 대표가 1일 5000만 원을 기부했다.

1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가 156건 3억 6557만여 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1만2034건 12억 3606만여 원으로 총 1만2190건에 16억여 원이 모였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사업 선정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관광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보전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선정되면 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양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양산시는 경남도가 진행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정 일반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합의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의 인상 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日서 20만弗 규모 수출계약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전남도

전라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하고,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기존 도쿄에서 열린 소비재전을 오사카에서 특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지역 기업은 화장품, 식품, 유기질 비료, 수산물 등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집중 전시하며 현지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안도

초도의 천일염에 다양한 맛을 더한 프리미엄 소금을 출품한(㈜해여름은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참가기업 10개 사는 일본 94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총 67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산불 이재민 심리안정 집중 지원

긴급 심리지원 핫라인도 운영

경북도가 대형산불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집중 지원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발생 다음날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주민지원에 나섰다.

지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국가, 영남권, 강원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적십자사), 전라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재단심리지원단 등 여러 기관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전문가의 개인 및 집단 상담, 산책 등을 독려하며 회복을 지원

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집이 전소돼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나이 및 상황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피해지역이 넓고, 대피소도 줄어들어 따라 긴급 심리지원 핫라인(1577-0199)을 운영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하는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많은 주민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어, 각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912곳서 진행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2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완화

첨단장비 무상지원 확대

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신산업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첨단장비 무상지원 확대에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은 ▲지역특화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4억4000만 원)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3억 원) ▲기술닥터 119 지원(1억 원) ▲e모빌리티 전기 구동계 부품산업 기술 혁신(3억 원) 등 4개 사업으로 경주시 주최, 해당 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향후 기업지원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이어 외동에 소재한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보유 첨단장비에 대해 지역 기업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에는 첨단소재 복합환경 내구 시험기, 고온저온 고소피로 시험기 등 시험평가 장비 8종이 있다.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에는 탄소소재 재생산을 위한 시생산 장비 6종, 분석장비 8종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에는 배터리 충전 성능 평가장비,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분석 시스템 등 5종이 구축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배터리 진동·충격 시험기, 배터리 낙하식 충격 시험기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당·열량 줄이고 단백질 더했다... 식탁 위 '저속노화' 트렌드

'노화방지' 관심 MZ세대 확산

파리바게뜨, 건강빵 '파란라벨' 한달만에 누적판매 120만개 돌파

오뚜기 '라이트앤조이' 론칭 저당 소스·지방줄인 참치 등 선택

'젊어 보이는 외모'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며, 식탁 위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다이어트나 헬스 식단을 넘어 노화 자체를 늦추는 식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웰에이징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6%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중장년층 중심이던 노화방지 관심이 이제는 MZ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리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2030세대 역시 중장년층 못지않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식품업계도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하는 다양한 제품



CU가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어 니즈에 맞춘 관련 신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BGF리테일

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빵과 스낵도 건강하게 즐긴다

SPC 파리바게뜨가 선보인 건강빵 브랜드 '파란라벨'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판매 120만 개를 돌파했다. 헬시플레이어와 저속노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셉트로 주목을 받으며,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독자적인 발효 기술과 엄선된 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달 초 '단백질 로만

밀 식빵', '홀그레인 오토 식빵', '고식 이섬유 통밀 식빵', '고단백 곡물롤' 등 건강빵 4종과 '투나 호밀 샌드위치', '야채 샐러드롤' 등 샌드위치 2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카페 투썸플레이스도 글루텐 함량을 줄인 '베리 베이글' 신제품 2종과 크림치즈 스프레드 1종을 선보이며 건강한 빵 라인업을 강화했다. 특히 유산균을 활용해 글루텐 함량을 일반 베이글 대비 45.7% 낮췄으며, 정통 제조 방식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롯데웰푸드는 간편식 제과 브랜드 '컴포트잇츠이너프'를 론칭하며 건강한 하루를 위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는 통곡물과 국내산 압착보리를 주원료로 하며,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유량은 높고 당,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줄였다. 론칭 50일만에 누적 200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무설탕·저당 식품으로 가볍게

오뚜기는 최근 식단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 열량, 지방 등을 낮춘 저당 제품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LIGHT&JOY (라이트앤조이)'를 1일 공식 론칭했다.

'라이트앤조이'에는 ▲당 함량을 낮춘 '저당 케잌', '1/2 하프 케잌', '저당 돈가스소스', '저당 양념치킨소스', '저당 허니머스타드', '당을 줄인 잼' 3종(논산딸기, 김천자두, 청송사과) ▲지방을 줄인 '가벼운 참치', '1/2 하프 마요네스' ▲100g당 최대 28kcal까지 낮춘 '저칼로리 드레싱' 3종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제품들은 이달부터 오뚜기몰과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된다.

편의점 CU도 건강 먹거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 스낵 브랜드 'Get Balanced'에 이어 작년에는 건강 견과

브랜드 'Get Natural'을 론칭해 누적 판매 40만 개를 넘기며, 견과류 매출을 전년 대비 25.6% 끌어올렸다. CU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간 건강과 회복력을 위한 '스마트 드링킹'

가벼운 음주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은 소맥 중심에서 저도주·논알콜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로슈거 소주 '새로'를 통해 MZ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2022년 출시 이후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판매 5억 병을 돌파하며 소주 시장 내 입지를 굳혔다. 무알콜 제품인 '클라우드 클리어 0.5',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도 전년 대비 20%씩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논알콜을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을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로슈거 소주 '진로', '진로골드'에 이어 '테라 라이트'를 중심으로 저칼로리·제로슈거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오비맥주도 무알콜 시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아 '카스 0.0'과 '카스 레몬 스키즈 0.0'을 출시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테이크, 135억 투자유치... "R&D·글로벌 인프라 확장"

기업은행 등 총 7곳 라운드 참여 "대체식품 분야 핵심기업 성장 기대"

대체식품푸드테크기업 인테이크(IN TAKE)가 135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사는 HB인베스트먼트, CJ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KDB산은캐피탈,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기업은행 등 총 7개 기관이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CJ인베스트먼트 김현규 수석 심사역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식품 연구 기술 고도화에 대한 업계 내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테이크는 서울대 식품공학 출신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체식품 소재의 핵심 특허 기술 개발 및 제품화 성공에 힘입어 향후 대체 식품 분야 내 핵심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설립된 인테이크는 현재 대체식품 B2C 사업과 대체단백질 B2B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체식품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2024년에는 약 2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약 30%의 연간 매출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약 60억 규모의 대체해조육 국책 연구과제 책임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테이크는 이번 신규 투자금을 현

재 진행하고 있는 미생물 기반 대체 단백질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글로벌 인프라 확장 사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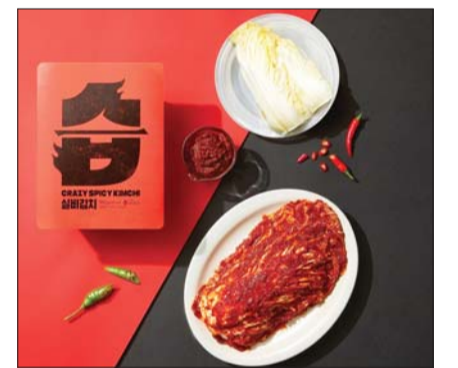
제 3세대 단백질 소재의 핵심인 정밀 발효 기반 효모 배양 기술은 기후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인류 단백질 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테이크는 이 기술을 활용해 대체육, 대체란, 대체유와 같은 2차 대체 단백질의 베이스가 되는 1차 단백질 분말을 생산하는 등 기술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테이크는 국내산 포도에서 생육하는 효모를 동정 분리하여 얻은 GRAS 효모를 자연 진화적인 방법(adaptive evolution)으로 개량해 일반 효모보다

단백질 함량이 1.5배 이상 높은 슈퍼프로틴 효모 균주를 개발했고,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다. 기존의 유청단백을 원천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효모단백 소재는 약 35조원 규모의 전세계 프로틴 시장을 타겟으로 하며, 2026년 북미시장부터 진출할 계획이다.

인테이크 한녹엽 대표이사는 "이번 시리즈C 투자는 인테이크의 대체식품 기술과 제품이 소비자들과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미생물 기반 대체 식품이 기존 식품 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핵심적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제일제당 화끈한 매운맛 실비김치 출시

CJ제일제당이 매운맛 트렌드 확대에 맞춘 김치 신제품을 내놓는다.

CJ제일제당은 '화끈한 매운맛'의 김치 신제품 'CJ실비김치'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시장에서 포장김치 판매가 확대되고 독립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김치 카테고리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J실비김치'는 젊은 MZ세대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의 관심도를 반영해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한다. 배달의민족 즉시배달 서비스인 '배민마트'에서 1일부터 선론칭, 판매에 들어갔으며, 3일부터는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에 선보인다.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전 경로는 이달 1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CJ 실비김치는 매운맛의 차원이 다른 '화끈한' 매운 김치로 매운맛을 측정하는 척도인 스킵 지수가 일반 배추김치의 30배 이상 달한다.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를 풍성하게 넣고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와의 최적 배합을 통해 강렬한 매운맛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전복·사과·소고기 등 할인

9일까지 '뽕큐절' 2주차 시행

롯데마트가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그로스리 쇼핑 대축제 '뽕큐절' 2주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주차 행사에서는 전복, 사과, 소고기 등 식품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먼저 사전 계약을 통해 대량으로 준비한 '한 판 전복'을 최근 1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당도 12브릭스 이상 사과만 선별한 '농가돕기 사과'를 기존 대비 30% 이상 할인해 제공한다.

'미국산 척아미플'과 '미국산 부채

살' 등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도 반값에 준비했다. 또,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봉지라면 전 품목을 대상으로 3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신선·가공 식품을 일자별로 초특가에 선보이는 '단 하루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로 대표 상품으로는 '수제 모듬 소시지', '성주 꼬마 참외' 등이 있다.

롯데마트는 뽕큐절 기간 '롯데 쿠폰' 행사도 운영한다. 롯데 쿠폰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7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이다.

/인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 희망퇴직 추진

무역센터점 3개층→2개층 축소

현대면세점이 면세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선다.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의 운영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면세점은 업계 부진에 따라 경영 효율화 방침으로 점포 및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많은 고민 끝에, 면세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 상황 개선과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시내면세점 외형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은 기존 8~10층 3개 층에서 8~9층 2개 층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회사 측은 앞으로 무역센터점과 인천공항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효율화도 단행한다. 현재 조직 및 인력 운영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직원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고객 접점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시행한다.

/인재선 기자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독신 사업 본격화... 수익성 개선 기대

‘티엠버스주 100단위’ 품목허가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최소화
향후 오송공장 생산규모 확대 예정
지나해 보툴리눔 독신 매출 줄어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 후발주자로 경쟁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3월 31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티엠버스주 100단위’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티엠버스주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제제로, 적응증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이다. 제조 공정에서 비동물성 원료와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환자를 비롯해 비건환자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티엠버스주

/종근당바이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해 5월 티엠버스주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1년여 만에 보툴리눔 독신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종근당바이오는 일찍이 지난 2019년 6월 유럽 소재 연구기관에서 출제가 명

확한 보툴리눔 독소 A형 균주의 상용화 라이선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균주를 활용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고, 티엠버스주는 미용 목적으로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임상 1상과 임상 3상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도

티엠버스주는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지나해 3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업화 되는 경우,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 독신의약품 수출국 범위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티엠버스주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보툴리눔 독신 전용 공장에서 생산된다.

종근당바이오 오송공장은 연면적 1만3716㎡ 규모로 미국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수준의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해당 시설의 보툴리눔 독신 생산 능력은 연간 600만 바이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바이오는 향후 연간 1600만 바이알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오송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툴리눔 독신 완제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이다. 해당 제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제제인데, 브랜드

명은 ‘타임버스주’다. 별도 임상시험이 나 품목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수출되어 왔다.

한편, 종근당바이오의 보툴리눔 독신 사업 매출은 지난 2024년 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8%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3.6% 줄어 104억원이다. 또 전체 매출 대부분이 수출 매출로 해당 규모는 45억원 수준이다. 종근당바이오는 이번 국내 품목허가를 성장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뿐 아니라 단백질 분리, 독소 정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등은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며 “원료, 기술력, 생산 역량 등에서 고무 경쟁력을 높여 온 만큼, 향후 발매가 본격화되면 생산 가동률 증대와 함께 보툴리눔 독신 사업부가 보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

국내 최대규모 ‘베이커리 전시회’ 열린다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150개사 참여... 네트워킹 자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전문 전시회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코엑스,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는 ‘베이커리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선보인다(Inspire Baking life)’를 주제로 진행된다. 150개사 300부스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원부재료부터 베이커리 완제품까지 베이커리 매장에 필요한 품목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베이커리 산업을 대표하는 명장들과 미래의 제과기능장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는 올해 새롭게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House of Patisserie)’ 특별관을 조성했다. 국내 트렌디한 베이커리와 디저트 완제품을 판



2025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포스터. /코엑스

매하는 업체가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테이스트 오브 서울(Taste of Seoul)’ 특별관에서는 ‘2024 서울미식주간’의 미식 큐레이터와 전문가가 인정한 디저트 맛집 6개 업체 ▲1994SEOUL ▲김씨부인 ▲메종엠 ▲재인 ▲제이엘 디저트바 ▲강정이 넘치는 집이 참

여한다.

베이커리를 소재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브레드이발소 부스를 연다. 밤 식빵으로 유명한 패스트리 맛집 ‘르빵(Le Pain)’과 협업해 만든 ‘브레드이발소 빵’을 만나볼 수 있다.

‘베스킨라빈스 카페테리아’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베스킨라빈스의 이달의 맛 아이스크림과 카페 음료를 선보인다. ‘가루쌀 작품전시장’에서는 쌀가루를 활용해 만든 제과 제빵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크림 치즈의 혁신을 보여주는 ‘웨스크림 크림치즈 신제품 개발 경연 대회’, 2026년 베이커리 월드컵 참가 자격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인 ‘2025 베이커리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전’ 등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입장권 소지자는 동기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커피엑스포’에도 입장할 수 있어 베이커리, 디저트 산업과 커피 산업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힐라홀딩스, ‘미스토홀딩스’로 사명 변경

MISTO

지난달 주주총회서 안건 의결
글로벌 기업으로 정체성 재확립

힐라홀딩스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미스토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던 기존 이미지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다.

미스토홀딩스는 그동안 스포츠 브랜드 힐라를 비롯해 중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법인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하지만 힐라홀딩스라는 사명이 ‘힐

라’ 브랜드와 직접 연결돼 있어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외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미스토홀딩스는 외부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해, 모든 산하 계열사와 브랜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사명 변경과 관계없이 힐라를 비롯한 미스토홀딩스 산하 모든 브랜드는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사명인 ‘미스토’는 조화와 다양성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다양한 가능성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미스토홀딩스는 사명 변경에 맞춰 새로운 기업 색상과 로고를 개발하고, 기업 공식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안재선 기자

라네즈, 7년 만에 ‘크림 스킨’ 신제품 선보

독자성분 ‘징크펩 콤플렉스’ 담아
토너 제형으로 유수분 균형 조절

아모레퍼시픽은 기능성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신제품 ‘크림 스킨 징크펩 토너&젤 모이스처라이저’ (사진)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라네즈는 브랜드 대표 제품군 ‘크림 스킨’에서 7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라네즈 독자 성분인 징크펩 콤플렉스 성분을 새롭게 담았다. 이 성분은 징크와 이중 펩타이드 성분을 결합한 것으로 피지 관리, 피부 탄력 등을 관리해 준다.

또 ‘크림 스킨 징크펩 토너&젤 모이스처라이저’는 특별한 제형 기술을 구현한 제품이다. 고압 블렌딩 기술을 적용해 토너 속 미세하게 쪼개진 젤 크림 성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 결과, 토너 제형으로 발라도 젤 크림의 유효 성분

이 피부에 빠르게 전달된다.

라네즈는 글로벌 화학연구센터에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해당 제품 사용 즉시 유수분 균형이 59.32% 강화되고, 피지분비량은 45.34%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4주 사용 후에는 모공 부피가 36.05% 개선됐다. 하이포알러지 테스트도 통과했다.

이와 관련 라네즈 관계자는 “수분감이 가득한 젤 크림을 토너에 담아, 무게감과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피부 유수분 균형을 조절할 수 있어 수분부족지성, 지성 피부 등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카카오스타일, 지난해 매출 2000억 돌파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액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원, 당기순이익은 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또, 카카오스타일의 지난해 거래액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몇 년간 이어진 비용 구조 효율화가 영업이익의 창출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은 지난 2022년 518억원이던 영업손실을 2023년 198억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거래액과 매출 등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동시에 이루며, 지난해 예비타(상각 전 영업이익) 약 80억원을 달성했다.

구매자 수도 상승세다. 지난해 지그재그 신규 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체 구매자 수 또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월 400만~500만 명 수준이던 지그재

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7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카카오스타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패션·뷰티·라이프 영역의 상품 다양화, 고객별 최적화 마케팅 등이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션 업계 대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의 확장이 1030 여성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올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전 연령대 패션, 뷰티, 라이프 분야의 고객 빅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ANGELINUS



조현민 한진 사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한진 조현민 사장(오른쪽)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진에 따르면 조 사장은 GS건설 허윤홍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다음 참여자로 안다르 공성아 대표를 추천했다. /한진



GS건설, 싱가포르에 종합 철도 시험센터 준공
GS건설은 싱가포르 서부에 종합 철도 시험센터(SRTC)를 준공하고,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 교통청(LTA), GS건설 조성한 인프라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난 28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조성한 인프라사업본부장(가운데)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씨티은행, 김경미 부행장 선임

한국씨티은행은 김경미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사진)을 부행장으로 선임한다고 1일 밝혔다. 김경미 부행장은 지난 1990년 씨티은행에 입행 후 기업금융 신용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부문 글로벌 헤드를 맡아 폭넓은 글로벌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위험관리책임자(CRO)로 선임돼 리스크 관리를 총괄했으며, 국내외 관계 법령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벤츠코리아 29일 '메르세데스 트로피' 예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5(MercedesTrophy 2025)'의 국내 지역 예선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지역 예선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11곳이 지역별 예선을 각각 주관한다. 이를 통해 국내 내선 진출자 약 90명이 선발되며 오는 8월 '메르세데스 트로피 내셔널 파이널'을 통해 한국 대표 3인이 결정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사

-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하 △수석전문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영민
-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 임명 △마케팅본부장 이문희 △전략기획처장 최수진 △언론부장 김준 △시설운영안전부장 광필성 △수소안전부장 박정규

부음

▲송완기씨 별세. 송정연(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종원(대신증권 상무)씨 부친상. 장필은(세파유한회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일 오전 11시 50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02-2072-2010

현대차, 'R1·셔클' 기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강화

(ST1 개조 특별교통차량·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화성시 협력... 5개월간 이동 지원 "지자체와 실질적인 솔루션 검증"

현대차는 1일 경기 화성 동탄 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셔클(SHUCLE)'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택시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의 뒷문으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로 이동해야 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현대차는 신체장애가 있는 승객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자사 새시캡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 'R1'과 셔클 플랫폼을 활용에 이날부터 5개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현대차 차량의 옆문으로 탑승하는 모습.

월간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R1은 기존 ST1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 옆문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했다. 국내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옆

문으로 탑승해 동승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R1이 유일하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셔클 플랫폼 이용 앱에 국내 최초로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선 통화를 통한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증명을 받은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1일 2회까지 동승자 2인을 포함해 무료로 탑승 및 이동이 가능하다. 최초 1회에 한해 셔클 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산불피해 지역 '노란우산' 신속 지원

"기업 정상화 도움 되길"

중소기업중앙회가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과 경북, 울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소재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등이다.



이들 지역 소재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부금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금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공제금 가입자의 경

우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 유예하며 피해 기업에는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복리이

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5월 두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비페이 3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이 지난 3월 누적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혜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전자 "‘찐팬’ 앰버서더 도전하세요"

최대 180만원 상당 혜택 제공

LG전자가 오는 14일까지 '찐팬'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2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 이용 경험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더 나은 삶(Better Life)'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제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서 팔로

워·구독자 500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동기와 콘텐츠 퀄리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명을 선발한다.

LG전자 제품 리뷰 커뮤니티 '재미(jammy)'에서 지원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정된 앰버서더는 콘텐츠 제작 지원금과 제품, LGE닷컴 포인트 등 최대 18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혜민 기자 hyem@

청호나이스, 지기원 대표이사 취임

"라이프케어 기업 위상 확고히"

청호나이스 지기원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청호나이스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지기원 대표(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대표는 청호나이스에 20여년 근무하며 전략 중심형 조직을 구축하고 신규채널을 성공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지 대표는 취임사에서 ▲신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내수 기반 강화 ▲글로벌 시장 성장 가속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기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출시하고 성장시켜 정수기와 환경가전 업체를 넘어선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롯데, '서울모빌리티쇼' 첫 참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 주제 전시

롯데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는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를 주제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을 구성한다. 롯데 전시관

은 ▲모빌리티 기술존 ▲자율주행존 ▲수소 밸류체인존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뉜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등 롯데화학군과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와 자율주행 등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노비즈협회, 30일 '모닝포럼'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이달부터 CEO 포럼을 다시 시작하며 이노비즈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제90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2009년부터 17년간 이어져 온 이노비즈 모닝포럼은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조찬 강연 프로그램으로, 매회 100여 명이

상이 참석해 최신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포럼은 4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총 5회 진행하며 ▲글로벌 무역질서 ▲AI 혁신 ▲인구 변화 ▲조직 변화 대응 ▲삶의 철학 등 폭넓은 주제를 통해 경영자의 시야 확장과 전략적 사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트럼프 상호관세 초읽기... 파급력은?



한용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부과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지난달 12일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달 3일 자동차 관세, 5월 3일 이전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예고로 전 세계가 트럼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세계 8위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수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3월 우리 수출은 트럼프 관세 전

쟁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국 수출이 1위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면서 크게 감소한 반면, 대미국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기준 수출국 1위 자리가 미국으로 고착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며 트럼프 관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7년 GDP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해 세계 GDP가 0.6% 하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가 겨냥하는 중국의 경우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5399억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5.0%를 밑돌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철강, 정제유, 신발 등 수출이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별로는 미국, 일본, 홍콩, 대만, EU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

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그러나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우회 수출을 통해 대응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중심의 수출을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된다. 양자, 다자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일·중 경제정상회담이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 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일중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키로 한 건 의미가 크다.

한일중FTA는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일중FTA는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중FTA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각국별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ys@metroseoul.co.kr

흔들리는 시장, 불확실성 끝내야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고 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두고 한 증권사 관계자가 속내를 드러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뚜렷한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스피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1470원대를 넘어섰다.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가의 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CD S 프리미엄도 다시 들쭉이고 있다.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한국의 CD S 프리미엄은 최근 오름세로 전환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

에서 한국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0.3636%포인트 상승해 연말 비상계엄 수준에 근접했다. CDS란 채권 발행 국가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면 CDS 프리미엄은 내려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최근 한국의 CD S 프리미엄 상승은 정치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40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31일에는 무려 1조575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경고음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다. 시장은 나쁜 소식보다도 '답이 없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권력 놀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신뢰가 빠져나간 뒤에 던지는 대응책은 약발이 없다. /wkh@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3월 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48년생 상식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으로는 도움. 60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사소한 일들이 모이면 큰일이 되니 기다려보라. 84년생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바퀴 친구가 온다.
- 소** 37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49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61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73년생 돈은 없으나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 85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 호랑이** 38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50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62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74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8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 토끼** 39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극복한다. 51년생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 63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75년생 돈보다는 기술로서 능력을 키워라. 87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음 기도를 해볼 것.
- 염** 40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라. 52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64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 생각하라. 76년생 몸을 의지하고 위탁할 곳이 없네. 88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 뱀** 41년생 배우자에게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니 벗어나려 하는 것. 53년생 남의 험담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65년생 자신을 알면 흉볼 것도 없다. 77년생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89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 말** 4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54년생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6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78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90년생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양** 43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55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67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79년생 아랫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 91년생 결정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 원숭이** 44년생 나이 들어 혼자서 하는 직업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56년생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8년생 언행에 경거망동을 주의. 80년생 자신에게 하나를 일러주면 셋을 알게 되니 기쁘다. 92년생 뜻하지 않은 횡재 날.
- 닭** 45년생 첫사랑이 아름답다 해도 지나친 일이다. 57년생 이성에 너무 조바심하지 마라. 69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81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93년생 인생사 뭐구명도 햇볕을 날이 있다 하지 않던가.
- 개** 46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58년생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승세이다. 70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94년생 집에서 독립한다고 뽐내지 마라. 수가 생겼다가.
- 돼지** 4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제해야 하라. 59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71년생 조급해하지 마라. 83년생 남은 시간을 어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95년생 청춘이라 해도 고뇌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 것이다.

김상희의四季 업의 빛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하는 삶이다. 신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에서야 인간과 만물을 창조한 신의 결의로 돌아가 영원히 천국생활을 한다는 것이지만, 불교는 업감(業感)이라 하여 자기가 짓고 받는 업의 힘으로 생과 사를 뛰어 넘는 의식의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이 존재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누가 내 업, 죄가 되었던 선업이 되었던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스스로 각자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를 천명하고 있다.

올해 을사년은 윤달이 있다. 음력 6월에 윤달이 드는 것이다. 윤달이 드는 해에는 조상묘의 이관이나 이장 그리고 수의 마련 등을 하며 동토도 나지 않는다 하여 집이나 담장 축대를 개축하거나 고치기도 한다. 윤달이 들 때는 땅과 하늘의 신들이 감시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민간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큰 사찰에서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하기도 한다. 생전예수재는 돌아가신 선망 부모나 친족 윤족을 위한 천도재와는 달리 산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살아있을 때 스스로 미리 제를 지내는 행위를 통해 살아오면서 진 빛과 업을 죽기 전에 미리 참회하여 사후를 대비하는 의식인 것이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중생사는 녹록하지가 않다. 탐진치로 돌아가는 게 세상사다 보니 알고 모르게 불선업을 짓는 일이 많고 원수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에 가을철부터 미리 겨우살이 준비를 하듯 다가 올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이다. 이러한 예수제 신앙은 고려 시대 때부터 널리 행해졌다는 기록도 보이며 오늘날에도 절에서는 윤년과 윤달이 있는 해에는 중요한 행사에 속한다. 업의 빛을 갚는 좋은 때인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9	1	2	8	8	2	9	6
2	6	9	7	5	2	1	8	8
2	8	8	1	6	9	5	7	2
6	1	7	8	2	9	8	8	2
8	2	8	6	9	1	7	2	9
9	2	9	8	7	8	6	2	1
5	8	2	9	1	9	2	6	7
5	8	2	2	8	6	8	1	9
1	9	6	8	2	7	8	9	2

2	9	2	7	8	6	1	9	8
8	1	6	9	2	9	8	7	2
8	9	7	1	8	2	6	9	2
5	7	9	2	6	1	8	2	8
6	8	2	8	9	7	2	1	9
2	8	1	2	9	8	9	6	7
1	6	8	9	2	9	8	1	2
7	2	8	6	7	9	2	8	9
9	2	9	8	1	8	7	2	6

전국 의대생들 ‘무늬만 복귀’ 수업 거부로 교육 정상화 난항

40개 의대 중 일부제의 전원 등록
등록률 높지만 참여율 저조 여전
교육부 “수업 참여해야 복귀 인정”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대부분이 지난달 31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수업 참여도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보겠다고 한 가운데, 전원 등록했던 울산대 의대생들이 최근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반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인제대와 인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 전원이 등록하거나 등록 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이 이달 초로 기한을 미뤘고, 인제대도 5일이 기한이지만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반면, 인하대는 지난 31일 자정까지 의대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2025학번 신입생 120명 중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고, 2024학번 이상 의대생 등록률도 100% 채우지 못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입생 대부분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등록기간 연장 계획은 없지만, 최종 집계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의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업 참여는 미지수다. 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 모습. /뉴스시

의대생들이 등록 의사를 밝힌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집단 휴학에서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대 의대는 학생 100%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학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의대는 지난달 31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도 176명 전원이 복귀했지만, 1~2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미수강 제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이어나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이날부터 1~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 전원이 등록한 고려대와 경희대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의대 수업을 재개한 성균관대도 학생 수업 참여율은 5% 내외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예과 1,2학년 수업은 일부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며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라고

토론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100% 수업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각 대학이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수업이 가능한 정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대략 정원 50%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등록 기간의 미시 조정은 학생 복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휴학 승인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향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교사단 직접 소통”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사동행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열정이 있고 서울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공개 모집해 기관 추천을 통해 교사동행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1년 동안 교육감과 만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하며, 현안과 정책 수립 관련 설문조사, 정책 포럼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사동행단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를 확대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 공감과 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참석해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148명의 교사들에게 교사동행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사동행단에 참여한 이미지 교사는 “동행이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커서 참여하게 됐는데,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정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며 참여 이유와 소감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교사동행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이달 18일부터 4개 지역서 운영

경기도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3월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물 등으로 환급된다. 단, 민통선 지역이므로 참가시 신분증은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4개 지역 테마노선은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이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DMZ 평화의 길.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장항습지 생태코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시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평화원의 상징 도라산평화공원 등 평화안보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1.21. 침투로와 삼국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1.21 침투로 탐방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노선별로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해당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와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대학생 마음건강’ 패스트트랙 구축

한국외대 등 대학 4곳과 협력
상담 후 심리회복·성장지원도

서울시가 진료와 취업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우울한 대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대학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한다.

서울시는 ‘대학생 마음건강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동양미래대, 삼육보건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대학 학생상담센터 4곳과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KSCL95)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 집단 내 고위험 비율은 대학생(30.4%), 무직·취업 준비생(30.0%)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문직(23.6%), 프리랜서(23.3%), 전업주부(23.3%), 직장인(21.6%), 자영업자(19.6%), 대학원생(13.6%) 순이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 취업, 대인 관계, 삶의 방향 설정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심리 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성격검사 등 과학적 진단 진행 후 마음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 상담과 후속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대학 학생상담센터는 심리적 위기로 즉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발굴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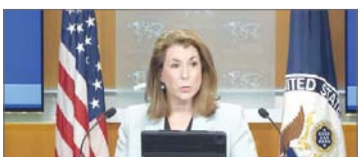
4월 2일 (수) 음력: 3월 5일

수도권 날씨 5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0/16, 동두천 1/16, 가평 0/17, 파주 0/14, 서울 5/16, 양평 2/16, 인천 5/13,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1/16,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국방부 “전투 병과 체력 기준, 남녀 차이 없어”
▲美 “우크라이나 입헌 민주주의”... 푸틴 ‘임시정부’ 요구 일축 /사진 뉴스시스

▲르 펜, 5년간 공직출마 금지령... 즉각 유효, 27년 대선 불가
▲이란, “미-이스라엘 핵구실 공격시 핵무기 개발 본격화” 위협

▲중국군 대만 포위 연합훈련 시작... 라이칭더에 비난 공세
▲일본 정부 “대지진 발생 시 30만명 사망할 것” 발표



당·열량 줄이고 단백질 더했다
저속화 트렌드
니



Life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독신
사업 본격화
L2



“수포자’ 만드는 선행학습... 잘못된 교육방식 바꾸고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속깊은 인터뷰

정승제

이투스·EBSi 수학 선생님

하필, 개그맨 이수지가 ‘대치맘’을 패러디하고, 추적60분이 방영한 ‘7세고시’가 화제가 된 시점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승제 이투스·EBSi 선생님을 만났던 날의 이야기다. 공교육제도, 학군지 엄마와 ‘선행 학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수학 일타강사의 만남이었다. “자식이 영재이길 바라는 부모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기는 학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쓴 소리가 시작부터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는 국내 최정상급 일타강사임에도 선행학습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꿈꾼다. 실제로 tvN ‘티쳐스’는 물론, 인터넷 강의(인강), 유튜브 채널 등을 오가며 선행에 의존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무리한 선행을 요구하는 부모를 향해 “수학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끝없이 조언한다.

쓴 소리 뒤엔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다. 수시로 뒤바뀌는 교육 정책, 선행을 부추기는 학원, 학부모의 욕심 만든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는 사교육이라는 철물성에 구멍을 내는 중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 몸담은 스스로를 선생이 아닌 ‘생선’이라 칭하고, 스타강사가 된 이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EBSi 인강에 열정을 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승제 선생님은 “지금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조금 씩이라도 증명해 간다면, 누군가 언젠가는 귀 기울이지 않겠나”라며 “나 한

사람으로 부족하겠지만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열심히 뚫어보려 한다”고 했다.

그의 직함을 강사가 아닌, 반드시 ‘선생님’으로 쓰겠다 마음먹은 것도 이때였다. 한 마디도 거르지 말고 싶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부 발언은 수위 조절이 불가피했다. 선생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다.

- 한국 교육은 왜 이 지경이 됐나.

“모든 문제는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공교육과정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교육 기관이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을 영재학교로 보내겠다는 무리한 욕심 때문에 7세 고시와 같은 무리한 선행학습이 시작됐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굳이 어려운 길에 밀어 넣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학대나 다름없다.”

- 학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컨설팅 업체, 학원들은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그들에겐 이 시장이 놓칠 수 없는 ‘황금노다지’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왜 아이를 방치하느냐’라는 공포심을 조성하고, 죄책감만 건드리면 부모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학원들이 부모를 공략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오죽하면 학원의 성패는 유명한 강사보다 유능한 상담 실장이 좌우한다는 말이 나왔겠나.”

학군지에서는 이미 당연시 되는, 소위 ‘의대(의과대학) 가는 공식’이란 게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 수1, 수2를 모두 끝내고, 중학교 이후 이 과정을 몇 바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을 따로 만들고 어린 학생들을 5시간씩 붙잡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 고등학생 5명 중 3명은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수포자의 비율은 중학생 46.2%, 고등학생이 되면 59.7%에 달한다.

정 선생님은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여기는 교육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은 전혀 모른 채 공식과 문제 유형을 모조리 외우며 진도를 쫓는 선행학습이 수포자를 만들고 있다.



정승제 강사가 4일 서울 마포구 구름담은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영재이길 바라는 부모님 욕심에 선행 부추기는 학원방식 더해져 고등학생 5명 중 3명 수포자 만들어

수학, 진도보다 개념 이해 중요해 암기 아닌 수학 원리에 초점 뒤야

성공한 수포자 파티 ‘위너스 클럽’ 선행 없이도 1년 내 성적향상 증명 수포자 단어 종식시키는 것이 ‘꿈’

- 선행 학습은 왜 문제인가.

“선행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를 언제 시작하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처라는 얘기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공식을 외우고 기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선행의 초점은 수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맞춰져 있다. 공식과 유형을 달달 외워 문제에 빨리 접근해서 푸는 방법만 가르친다. 모든 사교육 강사들도 이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고객(학부모와 학생)의 니즈를 맞춰야 하기엔 어쩔 수 없는 것뿐이다. 학교에서조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시간이 용납되지 않고, 집에서 얼마나 아는지 보다 진도를 몇 바퀴 돌렸는지가 더 중요한 환경을 만든다. 모두 수포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그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뭔가.

“중학교 1학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문제 풀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모든 수학 교과서, 수학의 정석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한다. 최소 30분 이상,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 때의 쾌감을 안다면 수학을 절대 싫어할 수가 없다.”

-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수학 전공자들이 몇 백 년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원에서는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몇 바퀴 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가 스퀴팅 당한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 선생님은 매년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모아 축하하는 ‘위너스클럽’ 파티를 연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정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룬 학생들을 축하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선행학습 없이도 제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위너스클럽은 뭔가.

“수학 6~7등급을 받던 수포자가 1년간 강의를 듣고 최소 3개 등급 이상 오르면 위너스클럽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 가장 경이로운 성적 향상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준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서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심지어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들도 있다.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1년 안에 수학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잘못된 사교육 환경을 옳다고 믿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장 통쾌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 수십 년간 제 때 제대로 공부하면 선행 없이도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구멍을 뚫고 있다. 힘들지만 티쳐스를 계속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열심히 바늘구멍을 내다보면 누군가는 저 사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 선생님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수포자라는 단어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다. 네이버에 수포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038년에 종식되었다. 정승제로 인해 수학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갈 길 먼데 외인 타자 케이브마저 부상... ‘최하위’ 위기의 두산
▲대니엘 강, 내달 한국서 열릴 LET 아람코 챔피언십 출격
/사진 뉴스스

▲NC파크 관중 사고에...K리그도 경기장 시설물 안전 점검
▲동부건설 골프단, 김수지·박주영·지한솔·장수연·윤민아 프로 재계약

▲손흥민, ‘역대 최다’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양민혁은 영플레이어상
▲K리그1 483명, K리그2 507명 등 총 990명...정기 선수 등록 마감